



(16) 박선홍 前 광주상의 부회장

■ 전라도 역사이야기

-호남의 기원

“내년에 ‘광주 100년’ 증보판 내겠습니다”

(1994년 발간)

“광주시민들은 불의를 참지 못할 뿐 아니라 좋은 일에는 항상 앞장섭니다. 한때 무등산에서 취사를 하는 시민들이 많아 1989년 무등산보호단체를 만들어 호소하니까 단 3개월 만에 바로 잡혔습니다. 국내 도립·국립공원에서 취사를 금지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이후 취사금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또 무등산 해맞이 행사 때 시민들이 가지고 온 햇불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자 1990년부터 이를 없애고 주장했는데 바로 시행됐습니다.”

광주의 ‘무등산 지킴이’이자 광주상공회의소의 산증인, 또 광주의 향토사학자로 통하는 박선홍(80) 광주상공회의소 전 부회장이 광주시민에 대해 평한 말이다. 박 전 부회장은 은퇴를 모르고 아직도 매일 자신이 이사자 있는 광주효성정 소년문화재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자신이 만든 각종 단체의 활동을 점검하는가 하면 광주의 향토사 정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건강은 평생을 해온 등산을 통해 다지고 있다.

“공직은 모르지만 시민운동을 하는데 은퇴가 있을 수 없나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지요.”

하지만 건강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한때 78kg나 되던 그의 몸무게는 60kg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그에게는 내년에도 큰 계획이 있다.



1961년 11월 무등산에서 개최된 전국등산대회. 당시 심판장을 맡았던 박선홍(맨 앞) 무등산보호단체 이사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중심사로 올라가고 있다.

“1948년 창립 학번으로서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박 전 부회장의 무등산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광주상의에 들어간 1952년 그는 보이스카우트 ‘무등소년대’ 대장으로 무등산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 당시 무등산은 6·25 전란을 거치면서 황폐화돼, 벌거숭이 민둥산이 도처에 깔려있었다. 1955년 광주·전남지역 최초 산악회인 ‘전남산악회’를 조직하고 1969년에는 전남산악연맹을 창설하기도 했던 박 이사장은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나무심기운동을 펼쳤다. 중고등학교 보이스카우트 대원들까지 총 동원했다. 그 결과 1990년대 되면서 무등산은 정상화됐다.

55년 광주·전남지역 첫 산악회 조직

나무심기 운동 등 무등산보호에 총력

박 전 부회장은 또 매일 산을 누비며 자생 동·식물을 관찰하고 사찰, 문화재 등을 조사했다. 관련 자료가 될 것 같으면 무엇이든 주워 모았다. 그는 이를 토대로 1976년 ‘무등산’이란 책을 펴냈다. 나이가 1989년엔 지역 산악단체와 YMCA, 흥사단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창설했다.

박 전 부회장은 나이가 2001년 ‘무등산 공유화 재단’을 설립하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뛰어들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무등산의 사유지를 사들여 영구 보존하는 운동이다. 시민과 기업들의 협조로 지금까지 무등산 자락 사유지 15만여평을 사들였다.

그는 또 지방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86년 ‘민화회’를 창설했다. 고향의 발자취를 더듬고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1994년엔 19세기말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향토자료와 역사를 집대성한 ‘광주 1백년’이란 책도 펴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강 하류 湖江 이남설’ 유력 18C 해동지도에 호남지도 실려

고려 초 지금의 전북 지역은 강남도(江南道), 전남 지역은 해양도(海洋道)라 했다. 1018(현종9)년 두 곳의 중심지인 전주와 나주의 첫 자를 따 ‘전라도(全羅道)’라 칭했다. 사람에게 별명이 있듯 고을에도 별호가 있다. 전라도를 대신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별칭은 ‘호남(湖南)’이다.

당나라 때 양쯔강의 뚱뚱호(洞庭湖) 남쪽 지역을 호남이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제 벽골제와 제천의 의림지를 기준으로 호남과 호서를 나눴다. 최근 고부의 놀제와 익산의 황등제(요교호) 또는 대전의 대청호도 거론되고 있다.

호수가 아니라도 대개 큰 강 하류나 하폭이 넓은 곳에는 ‘호’가 따랐다. 금강하류가 ‘호강(湖江)’이다.

그 이남을 호남이라 함이 타당하다는 설이 유력하나, 뒷받침할만한 문헌이 미흡한 상태다.



조선시대 초 57개 고을인 전라도는 광남도, 전광도, 전남도로 바뀐 적이 있지만, 호남 지역 민의 심성은 변함이 없었다. 송일기(중암대) 교수는 호남학 연구정보를 구축하면서 탁광부(1330~1408)의 문집 경림정집(景濂亭集)에서 호남을 찾아냈다. 이 책에 ‘해동형승천호남 상유림정하유담(海東形勝擅湖南 上有濂亭下有澗)’이란 구절이 있다.

조준(1346~1405)의 송담집을 비롯해 춘정변계량, 국당 박흥생, 경제 하연, 태재 유방선, 불우현 정극인, 태

허정 최항, 놀재 양성지, 취규헌 박광년의 문집에도 호남이 보인다. 이석형의 저한집과 신숙주의 보한재집에는 10여 차례 이상 언급되고 있다.

안방준은 1616년 왜란에 참여한 전라도 출신의 총절을 담은 ‘호남 의록(義錄)’이란 책을 펴냈다. 이후 호남병자장의록과 호남절의록도 발행됐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군까지 6회, 중종~현종 226회, 숙종~철종 659회나 호남이 검색된다. 18세기 제작된 해동지도에는 ‘호남지도’가 들어있고, 신경준의 산경표에는 ‘호남정맥’이란 명칭도 나온다.

인물을 말할 때도 호남을 앞에 두었다. 사립정신을 바탕으로 맺어진 박삼을 비롯한 11인을 ‘호남 도의교(道義交)’라 했다. 이밖에 호남 명류십걸(名流十傑), 호남 삼고(三高), 호남 실학(實學)삼걸, 호남 오현(五賢)도 있다. 구한말 의병운동과 관련해 전해산의 호남 동의단(同義團), 권택의 호남 장의도회소(壯義都會所), 기삼연과 김응구의 호남 창의회맹소(倡義會盟所)가 있다.

별칭은 고향에 대한 애증과 함께 향토성을 반영하고 있어 최근에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전통과 문화적인 면이 반영된다는 인식으로 각계에서 공식적인 기관이름에도 쓰이고 있다. 호수와 같이 차분하고, 남녘의 따뜻한 정이 배였으면 한다.

/김경수(새향토문화진흥원장)

故 박인천 회장과 전남근대화 앞장

호남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건의

“지난 1976년 처음으로 펴낸 ‘무등산’의 7번째 증보로 걸러낸 ‘무등산’을 펴내고 1994년 발간한 ‘광주 100년’ 증보판을 낼 계획입니다”

광주시 동구 총장로 5가에서 태어난 박 전 부회장은 해방 이후 상공 및 건설 행정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으로 6년간 일했다. 이때 그는 태평양전쟁이 나며 해산된 광주상공회의소 재건 작업을 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업인 지물상을 경영하기 위해 공직을 그만 뒀다. 하지만 동생이 6·25전쟁 중 전사하고 원자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사업의 육을 잃고 가업을 포기했다.

“전쟁 때 위원들이 상공인들이 행방불명되는 등의 이유로 광주상의가 와해됐다가 1952년 재건이 시도됐습니다. 그런데 재건업무 경험에 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 제가 그 일을 맡으면서 광주상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이 때부터 1993년 2월까지 40년 이상 고 박인천 회장(25년), 신태호 회장(16년), 고재철 회장(3년)을 잇따라 보필하며 광주상공회의소의 각종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다.

“당시 광주상의의 정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1965년께 전남근대화운동 차원에서 10만 전남도민의 서명을 받아 호남고속도로 조기 착공, 광주-목포간 도로 고속화, 공업단지 조성, 연초제조장 유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도 못하던 일을 한 것이지요. 때문에 박 회장은 정부 당국자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어요.”

박 전 부회장은 40여년 광주상의의 활동을 하나하나 되짚어

- 약력**
- ▲1926년 광주 총장로 출생
 - ▲광주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및 상임고문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사장
 - ▲조선대학교 이사장
 - ▲광주·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초대 회장
 - ▲제1회 대한민국 산악대상 산악환경상 수상

갔다.

“1976년 취임한 신 회장은 광주권 생산도시화 운동을 전개해 우선 본촌·송암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상공인들과 시민들의 돈을 건여 광주시에 위탁, 공업단지를 조성했어요. 하남공단은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텅 빈 하남공단을 채우기 위해 신 회장이 서울과 수도권에 기업들을 스스로 돌며 기업유치활동까지 벌였지요.”

박 전 부회장은 고재철 회장까지 모시고 1993년 박정구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상임고문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해 10월 조선대 이사장으로 취임, 6년간이나 활동했다.

박철용 총장 체제가 허물어진 이후 교수간 갈등, 교수·학생간 갈등 등으로 바람 잔 날 없던 조선대는 박 전 부회장이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모든 것을 대화로 풀어가며 안정기에 접하게 된다.

장류의 장수
정정순장으로 오십시오

장류의 장수, 고장, 정정순장으로 오십시오

장류의 장수, 고장, 정정순장으로 오십시오